

사랑의 고장 남원 광한루원(사적 제303호)의 랜드마크인 광한루(보물 제281호)가 올해 600년을 맞았다. 남원시는 광한루 600년을 맞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기념식과 타임캡슐, 타복행사, 학술대회 등 광한루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하공연을 광한루원과 차 없는 거리에서 펼친다.

깊은 역사·숨결 1000년 이어가길...

▲기념식과 막걸리축제

남원시는 광한루 600년 기념식을 8월 3일 오후 4시부터 광한루에서 개최하고, 기념식수, 성주굿, 연혁·편액낭독, 비나리 공연을 통해 광한루 600년의 역사와 앞으로 1000년을 이어갈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화합을 기원한다.

이에 앞서 2일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신선한 남원막걸리와 안주거리가 가득한 '한여름밤의 남원 막걸리 축제'는 개막 퍼포먼스와 지역가수들의 공연이 광한루앞 요천둔치에서 펼쳐진다.

광한루에서는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간 남원도공의 애환이 깃든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의 공연이 펼쳐지며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녁 8시에는 광한루 앞 차 없는 거리에서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을 쓴 효봉 여태명 작가의 붓글씨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수 인순이, 남진, 김용림, 포레

스텔라와 인기 아이돌 그룹 등이 참여하는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도 광한루 600년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광한루 600년 연중 이벤트로 흥겨운 농악한마당·광한루 전통 소리창(5~10월), 퓨전국악 오후 공연(5월~11월 7일), 광한루원의 밤풍경(5월~9월 27일), 전통혼례식(4월~10월 26일), 부모님 효도 결혼식(5월~8월 25일), 목판인쇄체험(5월~12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매달 2일 소비자들에게 인기 얻고 있는 남원막걸리 소재 축제 열려
3일 기념식 열고 식수·비나리 공연 통해 문화적 유산 자긍심 고취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이벤트·타복행사·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전개

▶ 광한루의 유래

춘향·몽룡의 사랑의 무대 판소리 춘향가의 중심지

남원 광한루는 1419년 황희가 그의 선조 환감평이 지은 서실 일제(逸齋)의 옛터에 누각을 세우고 부른 광통루에서 시작한다.

이후 1444년(세종 26년) 전라감사였던 정인지가 광통루(廣通樓)에 올라 경관에 반해 '호남의 경승으로 달나라에 있는 궁전 광한청허지부가 바로 이곳이 아니던가'라고 감탄해 이때부터 광통루를 광한루(廣寒樓)로 불리게 된다.

광한루의 전·후면에는 '호남제일루, 계관, 광한루'라는 현관이 걸려있다.

호남제일루는 말 그대로 호남에서 제일가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광한루는 하늘나라 월궁의 궁전 이름이며, 계관은 달나라의 계수나무 신궁을 상징한다. 이처럼 광한루는 지상과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빼어난 누각이다.

광한루는 또, 보물 제281호로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진주의 축석루(矗石樓), 평양의 부벽루(浮碧樓)와 함께 조선의 4대 누각 중 하나로,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으로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광한루 북쪽의 층층대는 1877년(고종 14년)에 부임한 부사 이용준이 광한루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을 막기 위해 누를 오르내리는 계단을 만들어 건물을 보호하고 화려하게 했다.

광한루 계단은 우리나라 누각에 현관을 가

설하는 시초가 된다.

광한루는 또,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의 무대로이자 판소리 춘향가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소중한 문화재로 오랜 기간 남원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딧불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